

# 정상빈 멀티골...황선홍호, 앙리의 프랑스 완파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21일 프랑스 리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프랑스 U-21 팀과 원정 친선전에서 정상빈의 멀티골을 앞세워 3-0 승리를 거뒀다. 사진은 지난 9월 창원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골이 나오자 기뻐하는 정상빈. /연합뉴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티에리 앙리 감독이 지휘한 프랑스 U-21 대표팀에 세 골차 완승을 거뒀다.

U-22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21일 프랑스 리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프랑스 U-21 팀과 원정 친선전에서 3-0으로 이겼다.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에서 뛰는 정상빈(미네소타)이 멀티골을 폭발하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고, 홍운상(포항)도 한 골을 추가했다.

황 감독은 안재준(부천)을 원톱으로 두고, 양 측면에 엄지성(광주)과 전병관(대전)을 출격시켜 공격진을 짰다.

여기에 강성진(서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해 이들을 지원하게 했으나, 전반에는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병관과 교체해 그라운드를 밟은 정상빈이 투입 25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홍운상이 프리킥 기회를 얻어내자, 직접 키커로 나선 정상빈은 페널티아크 뒤편에서 오른발로 강하

한국 U-22 축구 대표팀 친선경기에서 3-0 완승

후반 추가시간 홍운상도 골맛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 청신호

게 잡아왔다.

정상빈의 발을 떠난 공은 그림 같은 궤적을 그리며 수비벽을 넘어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찼다.

기세가 오른 정상빈은 9분 후에도 집중력을 발휘해 멀티골을 완성했다.

조현택(울산)이 왼쪽 측면에서 낮게 깔아 차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프랑스 골키퍼와 수비진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틈을 타 정상빈이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홍운상도 골 맛을 보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프랑스 진영에서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서

실수가 나오자, 홍운상이 이를 놓치지 않고 3-0을 만들었다.

이번 프랑스 원정은 내년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대회인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림픽 최다 연속 출전' 세계 기록(9회)을 보유한 한국 축구는 파리 올림픽을 통해 10회 연속 대회 본선행을 노린다.

황 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올림픽 대표팀의 당면 과제는 내년 4월 AFC U-23 챔피언십에서 3위 안에 들어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내는 것이다.

앞서 황선홍호 올림픽 대표팀은 지난 18일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리아브르 AC와 친선전에서는 득점 없이 비겼다.

'레전드 골잡이' 출신으로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을 이끄는 앙리 감독은 마티스 텔(바이에른 뮌헨), 브래들리 바르톨라(파리 생제르맹) 등 유수의 명문 구단에서 뛰는 유망주를 출전시켰으나 싹쓸이했다. /연합뉴스

## 최경주, 광주서 지역 골프 꿈나무들에 노하우 전수



최경주

26일 12명 대상 원포인트 레슨

광주·전남지역 골프꿈나무들이 대한민국 골프의 선구자 최경주에게 팁을 전수받는다.

최경주 재단과 광주도시공사는 26일 빛고를 컨트리클럽에서 '최경주와 광주도시공사가 함께하는 골프꿈나무 레슨'을 열고 지역 골프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한다.

이번 레슨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골프꿈나무' 12명으로 모두 대회 출전 경험을 갖고 있다.

지역 꿈나무들을 만나는 최경주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에 걸쳐 그의 노하우를 알려줄 계획이다.

골프꿈나무들은 빛고을연습장 3층 타석에서 기본동작 레슨을 받는다. 골프꿈나무들은 이후 골프장 1번홀 벙커로 이동해 최경주와 세 시간

가량 벙커샷 레슨을 한다.

대선배 최경주를 만나는 광주·전남지역 골프 꿈나무들은 이번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평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벙커에서의 플레이 등 경기 중 문제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원도 출신의 최경주는 저돌적인 플레이로 '탱크'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자격을 얻은 첫 한국인 선수로 PGA 무대에서 8승을 수확했다.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참가하는 PGA투어 챔피언십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경주는 이번 시즌까지 3년 동안 64차례 대회에 출전해 한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준우승 4번, 3위 3번을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프로당구 PBA 시즌 7차 투어 22일 개막

하이원리조트 챔피언십 30일까지

프로당구 PBA 일곱 번째 투어가 22일부터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다.

프로당구협회 PBA는 21일 "하이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을 22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PBA 투어 타이틀 스폰서에 참여했던 하이원리조트는 이번 시즌 PBA 팀 리그에 합류해 이충복, 임성균, 응우옌득아인찌엔, 응우옌프엉린(이상 베트남), 뤼피 체네트(튀르키예), 이미래, 용현지 등 스타 군단을 영입했다.

이번 대회는 22일 여자부 LPBA 1차 예선 라운드를 시작으로 23일 2차 예선과 64강전을 치른다.

24일은 남자부 PBA 128강으로 본격적인 대회에 들어간다.

LPBA 결승전은 29일 오후 9시 30분에 열리고, PBA 결승전은 30일 오후 9시 30분에 개최된다. 관전 포인트는 이충복의 프로 첫 승 여부다.

이번 시즌 우선 등록으로 프로에 입성한 이충복은 지난 6개 투어에서 아직 우승을 맛보지 못했다.

이충복은 벨기에 출신 강호인 에디 레판스(SK 렌터카)와 128강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여자부에서는 직전 투어 우승자인 최혜미(웰컴저축은행)가 시드를 받아 64강에서 대회를 시작하고, '특급 신인' 권발해와 '3쿠션 세계선수권 우승자' 이신영이 1차 예선 첫판부터 경기를 펼친다. /연합뉴스

## 우즈·매길로이 스크린골프 리그 출범 2025년으로 연기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주도하는 스크린골프 리그(이하 TGL) 출범이 2025년으로 연기됐다.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은 21일 "내년 1월 9일 출범 예정이었던 TGL이 최근 발생한 경기장 돌 지붕 붕괴 사고 때문에 2025년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세계 골프 스타들이 참가할 TGL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의 소피아 센터에서 개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겨 공기가 주입되는 소피아 센터 지붕이 내려앉았다.

우즈와 함께 TGL을 주도한 매길로이는 "리그가 연기돼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다시 뭉치고 다시 집중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디로 패스하지?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2023-2024 NBA 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커리(가운데)가 휴스턴 로키츠 선수들에 둘러싸인 채 패스할 곳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서울의 불
- 2관 서울의 불
- 3관 30일, 아워 프렌드
- 4관 서울의 불
- 5관 프레디의 피자 가게
- 6관 서울의 불, 프레디의 피자 가게
- 9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본 투 플라이

- 7관 싸여quem: 헝가리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더 마블스
- 8관 싸여quem: 프레디의 피자 가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소년들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GAC 기획공연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3-12-03(일) 오후 4시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062-613-8235